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the Nuclear Family among Married Men and Women

조소희* · 정혜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과

So Hee Cho · Hye Jeong Chung
Dept.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parents' marital adjustment and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nuclear family relationships (marital adjustment of married men and women, and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with 159 married men and 193 married women.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married men and women perceived the level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lower than that of nuclear family relationship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arital adjustment across sex, age, marital status, and income.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self-differentiation,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the nuclear family relationships, and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the nuclear family relationships.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parents' marital adjustment and emotional cutoff were the powerful predictors of marital adjustment of married men and women. Finally, women's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 was predicted by such variables as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parents, fusion with others, and emotional fusion, whereas men's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child was predicted by such variables as affectionate relationship with parents, emotional reactivity, and I-position.

Key Words : family of origin experience, self-differentiation, marital adjustment, parent-child affectionate relationship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원가족과 생식가족이라는 두개의 가족생활을 경험한다. 원가족과 생식가족은 '나'라는 공통요소를 제외하고는 별개의 구성원을 가진 별개의 가족이지만, 이 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역동이나 관계의 패턴이나 의사소통의 양상이나 가족규칙 등에 많은 유사성이 있다. 원가족과 생식가족의 유사성, 즉 가족과정이나 자녀양육 패턴이 일반적으로 세대를 거쳐 전이된다는 것은 발달이론가나 임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바(Patterson, 1998; Serbin & Karp, 2003; Belsky et al., 2005, 재인용), 특히 원가족 내에서의 학습이 후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Bowlby의 애착이론이나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So Hee Cho
Tel: 010-3800-0947, Fax: 063) 270-3839
E-mail: hee50771@chol.com

가족체계이론과 애착이론은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두 이론 모두 아동이나 개인 치료에서 심리분석적 관점의 한계에 대항해서 발전하였으며, 가족체계이론이 더 큰 맥락에서 개인의 심리를 치료하게 된 한편, 애착이론은 가족의 하위체계인 애착관계의 역동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Kozłowska & Hanney, 2002). 비록 이론에서 사용하는 핵심개념은 다르지만, 이러한 공통된 기원 때문에 내용상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Bowlby는 유아기 때 주양육자와의 애착형성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이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계획하는데 사용되는 '지도' 또는 '계획'과 비슷하다고 하여(Bowlby, 1969; 박은영, 2002, 재인용) 유아기 때부터의 원가족 경험이 훗날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를 설명하였다. 한편 Bowen(1978; Kerr & Bowen, 1988/2005)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고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가족에서 물려받은 분화수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여 여러 가족치료 이론 중에서 원가족 경험을 치료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원가족 경험은 현재 핵가족 내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러 이론들에서 언급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김경자, 2003; 김현정, 1999, 권정란, 2005)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결혼생활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경향적인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에 따라, 조사도구에 따라, 분석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득성(1986)의 연구에서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 결혼적응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유은희(198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부인(며느리)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조사하였는데 어머니의 결혼관계가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의 결혼의 질이 아들의 결혼의 질은 예측했으나 딸의 그것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연구(Feng et al., 1999; Miller et al., 2004, 재인용)도 있다.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정혜승, 1999) 반면,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아동의 현재 애착 간에는 관련성이 없었다는 연구(이영환, 1993)도 있다. 연구결과들이 이처럼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떤 조건 하에서 영향력이 나타났는지 혹은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고 본다. 또한 원가족 경험을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

성 측면에서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전춘애(1994)에 의하면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편에게 있어 더 크게 나타났지만, 권정란(2005)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경우에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부부적응에 있어 매우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원가족 건강성이 기혼남녀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Bowen 이론에 따르면 핵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선행 세대들의 정서적 역동에서 찾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변인은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분화 수준이다. 즉, 핵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변인으로 원가족 경험을, 현재의 심리적·관계적 변인으로 자기분화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분화는 Bowen이 가족문제를 바라본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현재 핵가족 내의 역기능은 가족구성원의 낮은 분화수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자기분화가 부부체계의 건강성과 가족전체의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전춘애, 1994; 제석봉, 1989; Kear, 1978; Fiegel, 1985; 김경자, 2003, 재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분화 또한 Bowen 이론에 의하면 핵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국내 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김경자(2003)에 의하면 가족체계기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원가족 경험이고 그 다음이 자기분화수준인데 자기분화수준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강명자(2007)에 의하면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자기분화는 부부갈등과 비슷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권정란(2005)에 의하면 남편의 경우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보다 자기분화가 부부적응에 더 유의한 설명변인인 반면 부인의 경우는 자기분화수준보다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더 설명력 있는 변인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이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즉, 과거와 현재의 가족관계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Spiegel & Wilssler, 1983; 전춘애, 1994, 재인용)되고 있는 주관적 지각을 바탕으로 원가족 경험이 핵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선행연구(김현정, 1999; 권정란, 2005; 전춘애, 1994)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의 영향력을 부부관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까지 포함하는 핵가

족 관계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핵가족 관계의 정서적 역동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Bowen 이론에 입각한 연구로서, 서구와 남성의 가치관을 반영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 Bowen 이론이 한국 사회의 일반 가족에 있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 내의 두 하위체계를 구분하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족문제의 유형과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맞춤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 및 핵가족 관계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라 원가족 경험(부모의 결혼적응과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및 자기분화, 핵가족 관계(기혼남녀의 결혼적응과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원가족 경험(부모의 결혼적응과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과 자기분화 및 핵가족 관계(기혼남녀의 결혼적응과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는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원가족 경험 및 자기분화가 핵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1) 부모의 결혼적응 및 자기분화가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및 자기분화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원가족 경험에 관한 이론들

Freud가 현재의 문제가 개인의 과거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을 전개한 이후로, 많은 이론들이 과거의 경험, 특히 원가족 내에서의 경험에서 현재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확대가족에 대한 강조를 그 특징으로 하는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이론과, 영아기 때 형성된 애착이 후일까지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됨을 주장한 Bowlby의 애착이론이 결혼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을 강조한 대표적인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이론과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은 애착과 자기분화라는 중심개념이 다르지만 내용상 유사한 점도 많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애착이론과 가족체계이론의 통합한 새로운 관점을 내세운 연구(Kozłowska & Hanney, 2002)도 있다.

먼저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을 살펴보면, 다른 가족치료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Bowen은 가족치료의 관심의 초점을 핵가족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했고, 현재와 닮아 있는 몇 세대 이전의 가족원들의 상호작용에까지 관심의 범위를 넓혔다.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이 2세대, 3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의 원가족에 대한 관심은 4, 5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또한 간단한 행동이론을 넘어서 인지 뿐만 아니라 심리내적 과정과 복잡한 관계이론까지 다루고 있다(Friedman, 1991; 이주연, 2008, 재인용). 초기에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 및 그 가족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동질화(togetherness)와 개성화(individuality) 두 세력의 균형이 정서적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면 양 극단의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됨을 설명하였다.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8가지 주요 개념, 즉 자기분화, 삼각관계, 핵가족 정서과정,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수과정, 정서적 단절, 사회정서적 과정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인간의 삶에는 만성적인 불안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안은 자연계의 필연적 부분인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불안이 증가하면 연합에 대한 압력이 증가해서 융합이 일어나고 지나친 융합은 여러 형태의 역기능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핵가족 내에서의 이런 정서적인 역동은 세대를 넘어서 반복되게 되고 투사에 취약한 자녀들 중에는 심각한 정신적 병리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Bowen 이론의 주요 개념들 중 원가족 경험의 영향과 특히 관련이 깊은 개념들은 핵가족 정서과정과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수과정 개념이다. 핵가족 정서과정이란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학습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며 결혼선택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인 장을 다세대에 걸쳐 반복함을 의미한다(정문자 외, 2007). 즉 원가족으로부터 분화가 덜 이루어진 사람은 결혼 후 상대방과 정서적 융합을 하게 되고, 그러한 융합의 결과로 배우자의 역기능이나 만성적인 결혼갈등, 자녀의 역기능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투사과정이란 동일한 가족 내에서도 부모는 각 자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미성숙한 부모는 가족체계나 부부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녀 중에서 가장 유아적이고 취약한 자녀

를 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원가족에서부터 야기된 정서적 불안이나 단절이 자녀에게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다세대 전수과정이란 가족의 정서과정이 대를 이어 전개되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보다 분화가 덜 된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분화수준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 형성한 가정의 불안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이들의 자녀 중 투사의 결과로서 더 낮은 분화수준의 자녀를 갖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만성 알코올 중독이나 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 등의 역기능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owlby는 모성박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신분석담론에서 제외되었던 잃어버린 어머니를 복원시켰다(Holmes, 1993/ 2005). 그는 정신분석적 관점이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유대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행동 제어 체계(behavior control system)의 개념을 적용하고, 동시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행동을 바라보는 동물행동학의 입장을 취하였다(장미자, 1998).

그리하여 그는 애착행동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을 특징짓는 요인이라고 가정하였고,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경과와 함께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재조직된다고 주장하고 이 재조직화된 기대를 내적 작동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장휘숙, 1998). 부모와의 애착의 영향이 개인의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Bowlby가 아동의 정서장치가 고전적 정신분석학자들의 주장처럼 심리내적 갈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족경험과 같은 대인관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Holmes, 1993; 장휘숙, 1998, 재인용)한 것보다 맥락을 같이 한다. 가족경험과 같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애착이 이후 자기와 타인과 관계에 대한 지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원가족 경험이 현재의 핵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두 이론을 먼저 부부관계의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애착이론에서는 유아 때의 내적 작동모델이 평생을 지속, 비슷한 애착유형을 가진 배우자를 만난다고 했고, 자기분화이론에서는 자기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박은영, 2002). 이는 원가족에서의 경험으로 개인의 성격상의 특징(애착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분화의 측면에서 보면)이 형성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유사한 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결혼생활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된 내용을 주

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애착유형을 갖는 사람끼리 파트너가 되는 경향이 있고(Collins & Read, 1990; 이숙 외, 1999, 재인용) 배우자 간 애착유형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전효정, 1999)와는 달리, 분화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Bowen의 가정은 실제 커플의 분화수준이 무작위로 짝지어진 커플의 분화수준보다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는 연구(Skowron, 2000)등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론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선 더 연구를 요한다고 하겠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도 애착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유형에 따라 자녀의 애착유형이 결정된다고 하고 있고, 자기분화이론에서도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의 상호관계가 정해지며 부모의 분화수준은 자녀에게로 전수된다고 하고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 양육자의 내적 작동모델과 영아와 양육자 간의 애착유형에 일치성을 보이는 많은 연구(Fonagy et al., 1991; Main et al., 1985; 박은영, 2002, 재인용)가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애착 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박용임, 1994, 이영환, 1993)도 있으나 근래에는 대체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정혜승, 2000; 허미선, 2000)가 많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해,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이 전이되느냐에 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아들의 자기분화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나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분화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하상희(2007)의 연구와 부모의 자기분화수준이 자녀의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Tuason & Friedlander, 2000; Miller et al., 2004, 재인용) 등이 있어 아직 입증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자기분화

Bowen 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자기분화는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개체화된 정도를 의미한다(Kerr & Bowen, 1988/ 2005). 그의 가족체계 이론에서 인간의 정서체계는 개별성과 연합성 두 세력을 중심으로 발달하며, 둘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연합성 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를 융합 내지 미분화라고 하며, 자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분화는 양 극단의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준다(Bowen, 1978; Nichols & Schwartz, 2001/ 2002)

그러나 개별성과 연합성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가 분화된 상태라는 설명과는 달리, 연합성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융합 내지 미분화라고 설명하면서 개별성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설명이나 강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분화는 두 가지 면에서 비판받아 왔다. 그 하나는 자기분화가 남성적 가치인 독립성, 자율성 등과는 관련되지만 여성적 가치인 관계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즉, Gilligan(1982)은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이론을 통해 많은 도덕성 발달이론에 내재된 남성적 편견의 수정을 주장했다. 여성의 경우 인간발달에 있어서 동정이나 보살핌, 상호의존성 같은 관계성이 중시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 정의 등이 남성발달의 주요 가치로 여겨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정옥분, 2007).

다른 하나는 자기분화 개념이 서구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비판은 남녀를 대비시켰고, 두 번째 비판은 동양과 서양을 대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견해는 Bowen이 말한 자기분화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사료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Bowen이 자기분화를 인간의 독특한 능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Wilson의 사회조직화의 세 가지 특징의 면(응집성, 이타주의, 협동)에서 점점 감퇴하는 쪽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인간에 이르러서 개체가하고자 하는 동시에 고도로 응집성, 이타주의, 협동이 강조되는 사회조직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독립성, 자율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면서도 팀플레이어가 가능한 점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더 협동적이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존중하고, 평온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도 적당한 접촉을 유지한다고(Kerr & Bowen, 1998/ 2005) 본 것이다.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이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남순현·한성열, 2003), 가족 내 응집성이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박유화, 2001; 심혜숙·신영규, 1994; 박수영, 2005, 재인용)도 분화가 높을수록 오히려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Bowen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보편적으로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Kagitcibasi, 2005; Killen & Wainryb, 2000; 정혜정·조은경, 2007, 재인용)을 생각할 때, 남녀의 차이,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만을 이유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개념이라고 하겠으며, 문제는 오히려 척도 개발시에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작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선행연구 고찰

1) 원가족 경험이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원가족 경험에 대한 고찰은 가족치료에서 많이 연구되는 것으로서 이혼이나 정신병, 가족폭력, 약물 중독 등 가족 문제의 세대 전이에 관해 초점을 두고 있다(김현정, 1999). 부모의 이혼이 성인자녀의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Meyer의 세대간 전이관점이 가장 일관성 있게 주장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경험적인 연구들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Kulka & Weingarten, 1979; Kunz, 1991; 김은경, 1997, 재인용). 또 Amato와 DeBoer(2001)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가 결혼을 이혼으로 끝내게 될 가능성을 거의 두 배로 한다고 했고, 부모가 결혼관계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혼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녀는 이혼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반면, Booth와 Edwards(1989)는 부모가 불행한 결혼관계에 남아있는 것이 이혼한 경우보다 자녀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전춘애, 1994, 재인용) 이혼의 영향에 대해서도 선행연구결과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나(김경신·김정란, 2002),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김남진, 2005; 정문자·이종원, 2003; 하상희, 2007)도 있다.

이처럼 결혼의 부정적 측면이 세대 전이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즉 효율적 의사소통, 차이에의 대처방법, 돌봄, 친밀감, 유대감, 생의 도전에 부딪히는 패턴 등도 세대간에 전달된다(김현정, 1999). 전춘애(1994)의 연구에선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에 대한 지각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모두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현정(1999)과 권정란(2006)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Perren 외(2005)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관계의 질을 부정적으로 회상한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결혼관계의 질도 더 부정적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도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득성(1986), 유은희(1989), Feng 외(1999)의 연구 등에서 그러하며, 장선웅(2008)의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부부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원가족 경험의 핵가족 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부모자녀 간의 애정적 유대관계는 주로 애착의 세대간 전이와 양육행동의 세대간 전이로 연구되고 있다. 먼저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보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간의 일치율을 조사한 연구(장미자, 1998)에서 65%의 일치율을 보였다. 영아기 때의 애착유형을 직접 연관시킨 것보다는 일치율이 낮지만,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과의 이러한 일치율은 부모 자신의 양육경험을 통해 형성된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부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애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관련이 없었다거나(이현미, 1996; 정혜승,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애착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박응임, 1994; 이영환, 1993)도 있다.

양육행동과 관련한 원가족 경험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과거 외조모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세대간 전이되는 부분과 전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장혜자, 2000)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동기 혼육경험이 지원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자녀 혼육시 덜 과잉반응적이며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지각했다는 연구(문혁준, 2000),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수용받았다고 회상한 어머니들이 9개월 된 유아에게 더 민감하고 덜 공격적이였다는 연구(Kretchmar & Jacobvitz, 2002) 등이 있고, 반면 어머니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양육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이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연구(김재희·주은선, 2002)도 있다.

2) 자기분화가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분화가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국내연구로는 전춘애(1994), 조은경(2001), 고현선(1993), 권정란(2006), 김남진(2005), 김수연(2001) 등 많은 연구가 있다. Kerr(1981)도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부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자기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Ellen(1984)도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분화수준이 낮을수록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박은영, 2002, 재인용). 또,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은 남편의 정서적 단절이라는 Skowron(2000)의 연구도 있어, 자기분화와 결혼만족이나 결혼적응과의 관계는 Bowen의 이론에 합치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자기분화가 핵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

년기 부부에 있어 자기분화 수준이 부부의 관계적응보다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주연(2008)의 연구가 있고, 어머니와 청소년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을 때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이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자녀의 갈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연구(유은희·전춘애, 1995)가 있고, 어머니의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일관성 있는 규제와 합리적 지도의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문희선, 1995)가 있는 정도이다. 부모의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해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전연진, 2002; 정문자·전연진, 2004) 등을 통해 그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라북도 거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과거 부모세대의 결혼생활의 질이 자녀세대로 전이되는지를 조사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이혼과 사별의 경우도 포함시켰으며, 청소년기는 발달의 단계상 신체적 변화나 사회·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시기이므로(김경희, 1999) 부모-자녀 간의 애정적 유대의 양상을 조사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였다.

2008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예비조사 실시 후 수정보완을 거쳐, 본 조사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3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450부가 배포되어 402부가 회수된 중에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50부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59명, 여성이 193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연령은 40대가 전체의 77.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은 고졸 출신이 25.4%, 전문대 및 대졸(중퇴 포함) 출신이 49.7%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교육년수는 14.24년이다. 소득수준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400만원 이하가 72.8%를 차지하고 있지만, 평균 소득수준은 41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367만원(통계청, 2007)보다 다소 높다.

직업유형은 남성의 경우 판매, 서비스직이 42명, 생산,

노무직이 18명, 사무직이 34명,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이 48명, 기타가 11명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여성의 44.1%인 84명이었고 판매, 서비스직이 42명,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이 36명, 사무직이 10명 등이었다. 결혼상태는 초혼이 92.8%인 322명이었다.

출생순서는 중간인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동생이 있는 장남·장녀가 31.1%였다. 자녀수는 2명이 58.7%로 가장 많았고, 평균 자녀수는 2.34명이었다. 평균 첫 자녀 연령은 17.46세였고, 평균 결혼지속년수도 첫 자녀 연령과 유사하게 17.94년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31.9%이고, 그 다음이 기독교(28.4%), 천주교(21.2%), 불교(11.3%) 순이었다.

2. 측정 도구

1) 결혼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주요 문제에 대한 일치성, 부부간의 긴장 등에 중점을 두어 결혼관계의 전반적인 질을 보는 결혼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Spanier(1976)의 결혼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의 문항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DAS를 수정한 Hunsley et al.(1995)의 10문항 만족도 하위척도와, Sharpley와 Rogers(1984)의 7문항 단축형 척도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Hunsley et al.(1995)은 자신들의 만족도 하위척도와 Sharpley와 Rogers의 7문항 단축형은 DAS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척도를 결합한 16문항(1문항은 중복) 중에서 자녀가 과거의 부모의 결혼적응에 관해 응답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2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이 사용되었다. 하위영역 없이 전체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결혼적응을 묻는 경우와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을 묻는 경우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다.

0~6점까지 7점 Likert 척도이며, 부모의 결혼적응에 대한 14문항의 Cronbach's α 는 .89였고, 기혼남녀 자신의 결혼적응에 대한 14문항의 Cronbach's α 는 .87였다.

2) 애정적 유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청소년기 대상의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의 척도는 28문항에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세 하위요인으로 나뉘지만 본 연구에서는 18문항만이 사용되었으며, 하위요인 없이 전체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제외된 10문항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혼남녀가 부모의 입장에서 대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외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18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 .93이었고,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18문항은 .91였다.

3) 자기분화 척도

자기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정혜정·조은경(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척도 38문항을 사용하였다. 0점에서 5점까지 Likert 식 6점 척도이다.

이 척도는 심리내적인 차원에서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의 두 하위요인을 가지고,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정서적 단절' 및 '타인과의 융합'이라는 두 하위요인을 가지고, 심리내적인 차원과 대인관계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정서적 융합'이라는 하위요인까지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정서적 융합' 요인은 정혜정·조은경(2007)의 연구에서 특이하게 발견된 요인으로,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 고유의 자기분화 하위척도로 사료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자기분화 38문항의 Cronbach's α 는 .88, 5개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정서적 반응은 .82, 자기입장은 .62, 타인과의 융합은 .76, 정서적 단절은 .72, 정서적 융합은 .77로 조사되었다. 원척도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89였고, 5개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69~.84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 경험, 자기분화,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차이검사는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원가족 경험, 자기분화,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관성 검증은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검증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원가족 경험, 자기분화,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 검증 그리고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차이분석에 앞서 원가족 경험과 핵가족 관계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남녀 모두 부모의 결혼적용보다 자신들의 결혼적용 수준을 높이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보다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수준을 높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같은 내용의 문항에 대해서 기혼남녀의 주관적 지각을 조사한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들은 과거 원가족보다 현재 핵가족에서의 관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성별에 따른 원가족 경험과 핵가족 관계의 차이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의 결혼적용 수준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했고 자신들의 결혼적용 수준도 유의하게 낮게 지각했다.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의 지각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 외 연령, 소득, 결혼상태에 따라서는도 차이를 보였는데, 초혼인 집단(M=4.31, SD=.92)은 이혼 또는 별거인 집단(M=2.36, SD=1.06)이나 사별인 집단(M=3.05, SD=.76)보다 결혼적용을 높게 지각했고(F=18.02, p<.001) 재혼인 집단

(M=3.58, SD=1.06)도 이혼이나 별거인 집단보다 결혼적용 수준을 높게 지각했다. 또 30대(M=4.53, SD=1.08)는 50대(M=3.93, SD=.93)에 비해 결혼적용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3.65, p<.05),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M=3.93, SD=1.05)은 301만원 이상인 집단(M=4.33, SD=.85)에 비해 유의하게 결혼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20, p<.05).

한편 자기분화에 있어서는도 남녀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 보았다(<표 2 참조>). 먼저 일반적 경향을 보면, 총 자기분화의 평균과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볼 때 조사대상자는 대체로 정서적 단절이 낮고 정서적 융합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총 자기분화에 있어서는 성별이나 결혼상태 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 영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에 따라 정서적 융합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적 융합이 낮은 것으로(역채점에 유의) 나타났다. 그 외 결혼상태에 따라 정서적 단절에 차이가 있었는데(F=3.75, p<.05) 초혼인 집단(M=3.08, SD=.94)이 사별인 집단(M=1.87, SD=.61)보다 정서적 단절이 낮았다.

2. 상관관계 분석결과

앞서 본 차이분석에서 성별에 따라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차이를 보였고, 선행연구들도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남녀의

<표 1> 성별에 따른 원가족 경험과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차이

M(SD)

변인		남	여	t 값
원가족 경험	부모의 결혼적용	3.95(.90)	3.67(.90)	-2.91**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3.37(.65)	3.25(.67)	-1.76
핵가족 관계	기혼남녀의 결혼적용	4.36(.94)	4.01(1.02)	-2.62**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3.66(.58)	3.69(.57)	.63

p**< .01

<표 2> 성별에 따른 자기분화의 차이

M(SD)

변인		남	여	t 값
총 자기분화		2.69 (.54)	2.60 (.52)	-.09
하위요인	정서적 반응	2.81 (.86)	2.80 (.76)	-.01
	자기입장	2.86 (.58)	2.76 (.58)	-.10
	타인과의 융합	2.67 (.75)	2.65 (.84)	-.02
	정서적 단절	3.13 (.89)	2.99(1.01)	-.14
	정서적 융합	2.18 (.75)	2.00 (.72)	-.18*

p* < .05

<표 3>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의 상관관계

()안의 수치는 남성의 경우임

변인	자기분화 하위요인					총 자기분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	
부모의 결혼적응	.23** (.33***)	.05 (.25**)	.16* (.26**)	.25*** (.26**)	.29*** (.30***)	.30*** (.40***)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19** (.32***)	.11 (.16*)	.05 (.14)	.24** (.23**)	.10 (.19*)	.20** (.30***)

p* < .05 p** < .01 p*** < .001

<표 4> 원가족 경험과 핵가족 관계의 상관관계

()안의 수치는 남성의 경우임

변인	기혼남녀의 결혼적응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부모의 결혼적응	.39*** (.39***)	.24** (.38***)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29*** (.26***)	.39*** (.40***)

p** < .01 p*** < .001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하의 분석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였다.

1)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의 상관관계

여성의 경우 부모의 결혼적응과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 총 자기분화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3>참조). 즉, 부모의 결혼적응이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을 적게 하고, 총 자기분화 수준은 높은 것을 뜻한다(역채점에 유의). 이에 비해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는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총 자기분화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다른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 상관계수가 전체적으로 부모의 결혼적응과의 상관계수보다 수치가 낮고 유의한 상관이 있는 하위요인도 적다. 따라서 원가족 경험 중에서도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보다 부모의 결혼적응이 자기분화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의 결혼적응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전부, 총 자기분화수준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수치도 전 영역에서 여성의 그것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즉, 부모의 결혼적응이 높을수록 남성은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을 적게 하고, 자기입장은 높으며, 총 자기분화수준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또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와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 총 자기분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많

은 자기분화 하위요인에 있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수치도 높은 경향이 있다.

2) 원가족 경험과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관관계

<표 4>를 보면, 여성의 경우 부모의 결혼적응과 여성의 결혼적응,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둘 다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의 결혼적응이 높을수록 여성의 결혼적응이 높고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도 높다는 것을 뜻한다. 또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도 여성의 결혼적응 및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을수록 여성의 결혼적응도 높고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도 높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부모의 결혼적응은 남성의 결혼적응 및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모의 결혼적응과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상관관계에 있어 남녀 간에 수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부모의 결혼적응이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강한 상관이 있는 것이다. 또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는 여성의 경우와 비슷하게 남성의 결혼적응 및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3) 자기분화와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관관계

<표 5>를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적응과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 총 자기분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역시 역채점인 것을 고려하면,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이 적을수록, 또 총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결혼적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는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총 자기분화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적응과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총 자기분화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또 자기입장이

<표 5> 자기분화와 핵가족 관계의 상관관계

()안의 수치는 남성의 경우임

변인	자기분화 하위요인					총 자기분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	
기혼남녀의 결혼적응	.34*** (.27**)	-.05 (.33***)	.25** (.13)	.55*** (.37***)	.22** (.01)	.39*** (.29***)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33*** (.43***)	.12 (.34***)	.28*** (.28***)	.34*** (.32***)	.04 (.17*)	.32*** (.43***)

p* < .05 p** < .01 p*** < .001

높고 총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결혼적응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입장과 정서적 융합에 있어 여성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남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는 자기분화 하위요인 모두와, 또 총 자기분화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역시 자기입장과 정서적 융합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앞서 핵가족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 연령, 결혼상태, 학력을 첫 번째 단계에서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부모의 결혼적응을 투입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자기분화를 하위영역별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3.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 - Watson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여성의 경우 2.04, 남성의 경우 2.24로 둘 다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 일반적 특성 변인들과 부모의 결혼적응과 자기분화가

먼저 여성의 결혼적응의 경우에 일반적 특성 변인 중 연령, 소득, 결혼상태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결혼적응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전체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표 6>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여성의 결혼적응			남성의 결혼적응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β	β	β	β	β
일반적 특성 변인	연령	-.19**	-.18**	-.12*	-.14	-.11	-.11
	소득	.16*	.14*	.21***	.05	.04	-.02
	학력	.05	.07	.03	-.07	-.05	-.06
	결혼상태	.37***	.29***	.22***	.19*	.15	.14*
부모의 결혼적응			.35***	.26***		.39***	.30***
자기 분화	정서적 반응			.03			.16
	자기입장			-.07			.25**
	타인과의 융합			-.01			-.16
	정서적 단절			.41***			.36***
	정서적 융합			.02			-.22*
F-value		11.60***	16.61***	15.94***	2.53*	7.85***	9.49***
상 수		4.53	3.20	2.28	5.48	3.65	2.36
Adj R ²		.20	.31	.47	.04	.19	.37
R ² - Change			.11	.16		.15	.18
Durbin-Watson			2.04			2.24	

주. 결혼상태는 초혼일 경우=1, 기타(재혼, 이혼·별거, 사별)의 경우=0으로 가변수 전환.
p* < .05 p** < .01 p*** < .001

은 정서적 단절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부모의 결혼적용이고, 결혼상태, 소득, 연령의 순이었다. 즉,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부모의 결혼적용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초혼일 때 여성의 결혼적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일반적 특성 변인이 가지는 설명력은 전체의 20%였고, 부모의 결혼적용의 추가적 설명력은 11%였으며,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의 추가적 설명력은 16%로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47%였다.

다음 남성의 결혼적용의 경우, 일반적 특성 변인 중 결혼상태만이 남성의 결혼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결혼적용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기입장과 정서적 단절과 정서적 융합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면 정서적 단절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으며 그 다음 부모의 결혼적용, 자기입장, 정서적 융합, 결혼상태 순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초혼일 때, 자기입장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정서적 융합이 높을수록 남성의 결혼적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일반적 특성 변인들의 설명력은 4%로 나타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부모의 결혼적용을 투입하자 설명력은 15%가 증가하여 전체 19%가 되었고, 세 번째 단계에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하자 설명력

은 다시 18%가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37%가 되었다.

2)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은 일반적 특성변인으로 첫 자녀 연령, 소득, 학력, 결혼상태를 투입하였고, 이후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을 차례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 - Watson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여성의 경우 2.11, 남성의 경우 1.89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의 경우, 일반적 특성 변인 중 첫 단계에선 소득과 결혼상태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고, 설명력은 8%였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선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와 결혼상태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추가적인 설명력은 9%로 전체 설명력은 17%가 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인 중 다시 소득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고,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 중에는 타인과의 융합과 정서적 융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타인과의 융합과 정서적 융합이 뒤를 이어 거의

<표 7>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여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남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β	β	β	β	β
일반적 특성 변인	첫 자녀 연령	-.10	-.10	-.05	.18*	.15*	.11
	소득	.16*	.13	.14*	.08	.06	.00
	학력	.03	.05	.03	-.07	-.11	-.11
	결혼상태	.22**	.18*	.13	-.03	-.03	-.04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31***	.27***		.41***	.28***
자기 분화	정서적 반응			.16			.32**
	자기입장			-.04			.25**
	타인과의 융합			.22*			.05
	정서적 단절			.11			.09
	정서적 융합			-.20*			-.16
F-value		4.67**	7.97***	7.03***	1.72	7.57***	8.38***
상수		3.46	2.61	2.29	3.34	2.36	1.57
Adj R ²		.08	.17	.26	.02	.18	.33
R ² - Change			.09	.09		.16	.15
Durbin-Watson			2.07			1.89	

주. 결혼상태는 초혼일 경우=1, 기타(재혼, 이혼·별거, 사별)의 경우=0으로 가변수 전환.
p* < .05 p** < .01 p*** < .001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설명력은 9%로, 투입된 변인 모두의 설명력은 총 26%였다.

남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있어선 첫 번째 단계에서 첫 자녀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2%였다. 두 번째 단계에선 첫 자녀 연령과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적인 설명력은 16%로 전체 설명력이 18%가 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하자 일반적 특성 변인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와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인 설명력은 15%로 전체 설명력은 33%가 되었다.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정서적 반응,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 자기입장의 순서로 큰 영향력을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이 낮을수록, 자기입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는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보다 원가족 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같은 내용의 문항에 대해 부모의 부부관계보다 자신의 부부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했고, 부모와의 유대관계의 수준보다 자녀와의 유대관계의 수준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서 현재의 핵가족 관계에 대해 '합리화'나 '보상'과 같은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본다. 즉, 원가족에서의 가족관계의 질보다는 현재 핵가족 관계의 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내적인 갈등을 회피하고 현실을 견디는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시 같은 내용의 문항에 대해 부모의 돌봄보다 자녀의 돌봄을 높이 지각하고 부모의 과보호보다 자녀의 과보호를 낮게 지각한 장선웅(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성별과 소득, 결혼상태에 따라 결혼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라 부모의 결혼적응에 대한 지각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결혼적응과 여성 자신의 결혼적응 수준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했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결혼적응 수준이 낮았으며, 30대가 50대보다 유의하게 결혼적응 수준이 높았

며, 초혼을 유지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적응 수준이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결혼적응과 자신의 결혼적응을 모두 낮게 지각한다는 것은 권정란(2005), 강명자(2007)의 연구나 하상희(2007)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앞선 연구들에서 원가족 건강성에 대한 여자의 평균이 남자보다는 높지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을 부모의 결혼적응과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관계로 세분화해서 고찰했기 때문에, 결혼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결혼생활이나 본인의 결혼생활 둘 다 여성이 남성들보다 낮게 지각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결혼관계 전반에 대한 여성들의 시각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분화에 있어 성별에 따라 정서적 융합 요인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남성이 정서적 반응을 적게 하고, 자기입장이 높은 수준이며, 타인과의 융합을 많이 한다는 조은경(200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입장이 높다는 연구결과(강은숙, 2005; 이주연, 2008; 이창만, 1992)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반응을 더 많이 하며, 자기입장과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의 정도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는 Skowron(1995; 조은경, 2001, 재인용)의 연구와도 다르지만, 이 척도에는 정서적 융합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본 것처럼 자기분화는 남성적 가치인 자율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남성에게 보다 유리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자기분화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비판을 반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 본다.

셋째,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 원가족 경험과 핵가족 관계, 자기분화와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사이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먼저, 남녀 모두에게 자기분화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보다는 부모의 결혼적응이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화'를 가르치는 것은 자녀의 분화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부모 스스로의 분화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은 자녀의 분화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정문자 외, 2007)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본다.

또, 여성에서보다 남성에 있어서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자기분화는 여성보다 원가족에게서 전수되는 요인이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세대간 융합/개별화 요인이 배우자에 대한 융합/개별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Lawson & Brossart, 2001)도 유사한 맥락으로 본다.

또, 원가족 경험이 여성의 자기분화 중 자기입장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못한 반면 남성의 자기입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와 타인과의 융합과는 남녀 공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여성의 경우 자기입장과 결혼적응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의 오랜 남녀 간의 성역할 관념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 자기입장과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역시 부모역할에서의 성역할 관념과 관련된다고 본다. 즉, 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지 남성은 여성보다 자신감이 그 역할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아버지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Woodworth et al., 1996; 김영희 외, 2007, 재인용)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본다. 타인과의 융합에 대해선 개념상의 엄밀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가족 경험과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부모의 결혼적응은 남녀 모두 자신들의 결혼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는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나,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의 결혼적응이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도 이에 버금가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원가족 경험이 남성의 경우에 자기분화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고, 자기분화가 남성의 경우에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원가족 경험, 그 중에서도 부모의 결혼적응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 자기분화와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분화와 기혼남녀의 결혼적응과는 여성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자기분화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는 남성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결혼적응과 자녀와의 유대 증진에 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은 결혼적응을 높이는 데 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성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를 높이는 데 보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넷째, 부모의 결혼적응과 자기분화가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남녀 공히 정서적 단절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부모의 결혼적응

이었다. 여성의 경우에 정서적 단절의 영향력은 더욱 컸으며 일반적 특성변인의 설명력도 상당히 높아서 여성의 결혼적응의 20%를 설명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초혼일 때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또 자기입장이 높을수록, 정서적 융합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일 때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적응의 영향력 비교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에 있어서 약간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원가족 경험의 영향이 남성에 있어 부부갈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하상희(2007)의 연구, 원가족 경험이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적응에 미친 영향에 있어 역시 남편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이 나타난 김현정(1999)의 연구, 결혼만족에 대한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영향력이 남편에 있어 더 크게 나타난 전춘애(1994)의 연구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는 정서적 단절만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전춘애(199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이 남녀 모두에게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조은경(2001)의 연구와도 일부만 일치하는 결과이며, 정서적 단절, 그 중에서도 남성 쪽의 정서적 단절이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했다는 Skowron(2000)의 연구와도 일부만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결혼적응에 대한 자기분화의 영향력 비교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16%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18%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분화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고 한 Mee-Gaik(1991; 전춘애, 1994, 재인용)의 연구, 역시 여성에게 있어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이 결혼만족도에 약간 더 큰 영향을 미친 조은경(2001)의 연구, 반대로 오히려 남편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전춘애(1994)의 연구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6:18로 수치에 큰 차이가 없어 자기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본다.

또 남성의 경우에 정서적 융합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융합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이기 쉽다는 Bowen 이론에서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앞서 본 상관관계 분석에서 남성의 결혼적응과 정서적 융합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의사효과(spurious effect)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의사효과란, 두 예측변수들 간에 일어나는 효과인데 두 변수가 직접·간접적인 연결은 없

으나 제 3의 변수에 의하여 동시에 영향을 받으므로 해서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의 효과이다(강병서, 1999). 여러 변수들이 회귀분석에 투입되면서 변수들의 효과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정서적 융합 요인은 기존의 척도에 포함되지 않고 정혜정·조은경(2007)의 연구에서 특이하게 발견된 한국인 고유의 자기분화 하위척도로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이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대한 부모의 결혼적응과 자기분화의 영향력 비교에서는, 남녀 모두에 있어 자기분화의 영향력이 다소 높다고 본다. <표 6>의 β 값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춘애(1994)와 권정란(2005)의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지각과 총 자기분화수준이 분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남편의 경우에 자기분화가 원가족 요인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융합이 낮을수록, 정서적 융합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이 낮을수록, 자기입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았다.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미치는 영향력의 비교에서는, 9:16으로 남성에 있어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남녀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며, 이는 역시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이 남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김현정, 1999; 전춘애, 1994; 하상희, 2007)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본다.

또, 여성의 경우 타인과의 융합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가 높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특히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김영일, 2006; 조은경, 2001)이 있는데, 청소년기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청소년기는 독립성을 추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부모들이 지나치게 과보호적이고 엄격하고 자녀의 성취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부모-자녀 간의 갈등원인이 되는 수가 많은데(김경희, 1999), 달리 말하면 타인과의 융합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가 낮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위의 분석결과를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정서적 융합은 자녀와의 애정적 유

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본 상관관계 분석에서 정서적 융합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성의 정서적 융합과 결혼적응의 관계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의사효과일 가능성이 있고 후속연구를 더 요한다고 하겠다.

남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있어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두 하위요인은 모두 심리내적인 차원으로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남편의 자기분화는 심리내적 차원으로부터 설명되는 크기가 더 크고 부인의 자기분화는 대인관계적 차원으로부터 설명되는 크기가 더 크다는 이주연(200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남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있어서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분화보다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혼적응에서 주로 정서적 단절이나 타인과의 융합처럼 대인관계적인 차원이 영향을 미친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며, 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에서도 대인관계적 차원이 더 영향을 미친 것과도 대비되는 결과이다. 남성들의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대한 자기분화의 영향력 비교에 있어서는,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서 자기분화의 영향력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자기분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다. 추가적인 설명력이 9:15이므로 남성에게 있어 더 자기분화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앞에서 총 자기분화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남성에게 상관수치가 더 크게 나타났던 것도 같은 의미로 본다.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와 자기분화의 영향력 비교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남성의 경우 자기분화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분화의 설명력도 그다지 높지 않았고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의 설명력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는 했으나 수치는 오히려 남성의 그것보다 낮았다. 남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의 경우에는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나서, 결혼적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가족 요인보다 자기분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는 한국의 핵가족 관계(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전춘애(1994)의 연구 등에서 한국의 가족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지

만,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였다. 핵가족 내에서 증상을 형성하게 하는 정서기능의 패턴이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던(Kerr & Bowen, 1988/2005) Bowen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기혼남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직업유형에 있어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의 표집비율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학력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다.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에 있어 집단의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결혼상태에 따른 집단의 분류에 있어 사별인 사례는 3경우에 지나지 않아 역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Hunsley et al.(1995)의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적응 단축형 척도가 개발되어 있어 결혼적응의 총 점수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결혼적응이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또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논외로 하였다. 역시 유익한 연구주제가 되리라고 본다.

셋째, 자기분화와 기혼남녀의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자기분화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관적인 지각을 조사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 조사하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원가족 경험의 영향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리라고 본다.

다섯째, 정서적 융합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서적 융합 요인은 남성의 결혼적응과 여성의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있어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으면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것이 의사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후속연구에서 보다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제어 : 원가족 경험, 자기분화, 결혼적응, 부모자녀간 애정적 유대

참 고 문 헌

- 강명자(2007).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자아분화와 부부 갈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병서(1999).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무역경영사.
-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김정란(2002). 가정폭력 세대전이가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79-98.
- 김경자(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1999). 발달심리학 -생애발달-. 학문사
- 김광웅·조유진·정유진(2005).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인지조절 능력의 성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379-389.
- 김득성(1986).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I).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 12집.
- 김영일(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신희정·채영문(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은경(1997).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직, 간접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91-200.
- 김재희·주은선(2002).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4), 1-18.
- 김현정(1999).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청주시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한성열(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 문혁준(2000). 부모 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 대한가정학회

- 지, 38(5), 107-119.
- 문희선(1994).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양육태도의 관계 -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영(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02).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임(1994).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희(2003). 아버지 양육태도의 세대전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 김순옥 · 김경신(2000).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은희 · 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유은희 · 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 이숙 · 우희정 · 노명희 · 최정미(1999).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43-54.
- 이영환(1993). '낮선 상환'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연(2008).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한 노년기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개인자료와 부부자료의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만(1992).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미(1996).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선웅(2008).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 및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자(2002). 세대를 통하여 전이되는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조모의 양육지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휘숙(1998). 애착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 남편에 대한 애착 및 자녀의 생활만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121-133.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매커니즘: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문자 · 전연진(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및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과 이들 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9), 161-175.
- 정문자 · 이종원(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 정문자 · 정혜정 · 이선혜 · 전영주(2007). 가족치료의 이해. 학지사.
- 정옥분(2007). 전 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학지사.
- 정혜승(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 · 조은경(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9-48.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경(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상희(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자존감 및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7-27.
- 허미선(2000). 부모의 대부모(對父母) 애착유형과 부부 애착 유형 및 자녀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 Deboer, D. D. (2001). The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Across Generations: Relationship Skills or Commitment to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038-1051.
- Belsky, J., Jaffee, S. R., Sligo, J., Woodward, L., & Silva, P. A. (2005).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arm-Sensitive-Stimulating Parenting: A Prospective Study of Mothers and Fathers of 3-Year-Olds. *Child Development*, 76(2), 384-396.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Jason Aronson, Inc.
- Holmes, J. (1993). *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Taylor & Francis Books. 이경숙 역(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 Hunsley, J., Pinsent, C., Lefevre, M., James-Tanner, S., & Vito, D. (1995). Construct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amily Relationship*, 44(3), 231-237.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and London: Norton Company. 남순현 · 전영주 · 황영훈 역(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Kozłowska, K., & Hanney, L. (2002). The Network Perspective: An Integration of Attachment and Family Systems Theories. *Family Process*, 41(3), 284-312.
- Kretchmar, M. D., & Jacovitz, D. B. (2002). Observing Mother-Child Relationships Across Generations: Boundary Patterns,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of Caregiving. *Family Process*, 41(3), 351-374.
- Lawson, D. M., & Brossart, D. F.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dividuation and Intimacy Across Three Generations. *Family Process*, 40(4), 429-442.
- Miller, R. B., Anderson, S., & Keala, D. K. (2004). Is Bowen Theory Valid? A Review of Basic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4), 453-466.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Fifth*. Allyn & Bacon. 김영애 · 정문자 · 송성자 · 제석봉 · 심혜숙 · 김정택 · 정석환 · 김계현 역 (2002).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Perren, S., Von Wyl, A., Bürgin, D., Simoni, H., & Von Klitzing, K. (2005).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Quality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Process*, 44(4), 441-459.
- Skowron, E. A. (2000). The Role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2), 229-237.

(2008. 6. 27 접수; 2008. 10. 8 채택)